

현장시선



허영진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따뜻한 금융, 희망을 그린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역경을 견디면서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감염증 사태로 조심스럽고 힘든 나날은 우리에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험과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금융에서도 언택트(untact, 비대면) 문화에 대비한 간편결제 앱 개발과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에 돌입했으며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대출 운영은 경제환경에 민감한 계층들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자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금융기

관이 있다. 바로 금융 소외 계층에게 언제나 따뜻한 등을 내주겠다는 '어부바'를 실천하고 있는 신협이다.
어부바 문화에는 사랑과 정이 오간다. 갑을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 속에 엮고 엮히는 관계, 이것이 신협이며 신협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금융의 미래다. 신협의 주인은 조합원으로 최종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하며 조합원에게는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공평하게 의견권이 부여된다. 수익이 발생되면 얼마를 출자자에게 환원할 것인지도 조합원이 결정한다. 2019년말 기준 도내 신협은 70억원을 배당금으로 환원했다. 거래하는 조합원이 주인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금융기관은 따뜻한 금융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신협의 기부문화는 일상화돼 있다. 전국에 있는 임직원들은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신협사회공헌재단 누적금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기부금액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게 환원된다. 또한, 도내 신협은 별도로 매년 8억원 내외를 도민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신협 기부문화의 특징은 단순기부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2020년 7월 도내 신협은 어려운 계층을 찾아 임직원들이 벽지, 장판지 등을 교체해 주는 행복한 집프로젝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임직원들의 기부와 실천이라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도내 신협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담보대출 이자 지원, 공제료 납입 유예, 약관대출 이자 납입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과 현물운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어부바를 실천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제주 도민과 조합원 어부바를 위해 타 기관 고금리로 고통받는 대출자에게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신협815해방대출', 고령 조합원 돌봄 서비스 일환인 '어부바 효 예약금',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위치 알리기 무료지원', 저출산 문제 완화와 다자녀 가정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한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 대출', '재난지역 대출 지원', '지역특화사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등 7대 포용 금융 프로젝트를 설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 도민들이 금융을 통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등을 밀어주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야 하는 금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윤 극대화보다 금융거래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생을 실천하는 따뜻한 금융을 희망한다.

사설

'치안·안전 전국 최하위', 이대로 둘 건가

평화의 섬, 치유의 섬 제주가 오랜 기간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달고 있습니다. 국제관광지로서 누구나 한번 들르고 싶은 제주 섬이 명성과 달리 범죄발생률과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고, 높은 인구밀도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면 그간 행정·치안당국의 무관심, 무대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 발간 2019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2만6090건입니다. 2018년 2만7427건보다 1337건 줄었습니다. 반면 인구를 고려한 범죄발생률을 보면 판판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야 하는 금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윤 극대화보다 금융거래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생을 실천하는 따뜻한 금융을 희망한다.

중 등 타 지역과 다른 사회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10년 넘게 전국 최고 범죄발생률은 수긍하기 힘든 '치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도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입니다. 5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앞선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주의 높은 범죄발생률, 지역안전지수 최하위 불명예는 지역 안전망구축을 위한 시·선·인력 확충의 실패에 있다할 것입니다. 실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율은 전국 9개 광역도(평균 44%)중 가장 낮은 34%에 그칩니다. 지난 3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대비 최근 2008년 이후 무려 12년 연속 전국 시도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최고 제주 범죄발생률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더 이상 특단의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됩니다.

특하면 집중호우, 선제 대응 중요하다

이제는 비 내리는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집니다. 특하면 물폭탄을 방불케하니 말입니다. 현재 다른 지방에서 속출하는 폭우 피해가 남의 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개선 시급한 곳이 많지만 국비 확보가 쉽지 않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구좌읍 송당지구(송당·세화리 일대)는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침수와 토사 유실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적잖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시간당 18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당지구는 저지대 지형에 하천도 없어 집중호우 때 속수무책으로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송당지구를 내조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기본 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 이유입니다. 사업 추진에

는 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 확보에 뛰어들면서 송당지구의 선정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더라도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집중호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연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강타한 폭우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만 15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은 8000ha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집중호우는 제주에서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장마때와 태풍철뿐만 아니라 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퍼붓기 일쑤입니다. 특히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물난리 등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년 농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기본 조사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 이유입니다. 사업 추진에

열린마당
다가오는 태풍을 대비하자



홍정국
안덕119센터

또 비상시 대피할 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태풍·호우 특보 발표 시 해당아,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가스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풍·호우특보 이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해야하고,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건너지 않는 게 좋다.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태풍 및 호우 등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족이나 이웃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함께 대비하길 바란다.

뉴스-in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 안전 역할"

"자치경찰법 개정안 유감"
○...원희룡 제주지사가 6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 원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편입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이어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 백규택지사

(21억),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96억), 국악지구배수개선사업(68억), 어촌뉴딜300사업(140억), 재활용·업사이클링 건립사업(15억)에 필요한 국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5개 부처를 찾은 계획.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감소가 우려돼 안 사장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이상민기자
시티투어버스 운행 점검
○...김태업 서귀포시장은 6일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살피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
김 시장은 이날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직접 시티투어버스에 탑승, 시민·관광객들의 이용시 예상되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운영 상황을 현장점검.
김 시장은 "공영버스는 시민의 발이나 다름없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현병준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고경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머니 곡산강씨 임송(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6일 07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8월 7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8월 8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광령리 선영
아들 고찬우 며느리 강신자
찬구 권정식
찬홍 김화정
경우 양선화
딸 고순 손녀 김세은
순재 사위 김기창
희부 함승보
선부 양치연
※ 연락처 : 고경우 010-8661-5541

부고
김승만(前 봉개동 노인회장) 부인 풍천임씨 순일(향년 82세)께서 서기 2020년 8월 5일 20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8월 7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8월 8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봉개동 가족선영
남편 김승만
아들 김선식 며느리 고은숙
병철 장혜정
대현 김화정
딸 김정임 사위 신홍균
손자 김동환 손녀 김세은
관우 채연민서
외손녀 신은서
※ 연락처 : 김승만 010-4693-1570
김선식 010-3682-7030
김병철 010-3364-7564
김대현 010-3119-2720
김정임 010-9029-3316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현길태(1974. 3. 21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96-3, 102호(은혜베리)
상기자는 2020년 8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7월 29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96-3, 102호(은혜베리)
출발주소: 풍인시 주거구 죽전로 267, 805동 2102호
출발일시: 2020년 8월 7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 승 자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고군운(1937. 2. 13.생)
*최후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4길 16 (평대리)
*등속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4길 32의 1
상기자는 2017. 8. 11.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고광수, 고영수, 고중수, 고일수, 고행수, 고성수는 2020년 7월 29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488 상속한정승인 사건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4길 11(평대리) 고중수
2020년 8월 7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고광수, 고영수, 고중수, 고일수, 고행수, 고성수

별초
전문별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시면 이룬 성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